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<input type="checkbox"/> 중국 칭다오 동자커우항(董家口港), 중국 최대의 심수항(深水港) 건설	2
<input type="checkbox"/> 미국, 조지아주 사바나항 확장 공사 착공	3
<input type="checkbox"/> APMT, 나이지리아 항만 개발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	4
<input type="checkbox"/> DP World, Jawaharlal Nehru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계약 체결	5

□ 중국 칭다오 동자커우항(董家口港), 중국 최대의 심수항(深水港) 건설

- 칭다오 동자커우항은 산둥성(山東省) 칭다오시(青島市) 해안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음
 - 동자커우항은 일년 내내 얼지 않고 토사가 쌓이지 않는 천연 심수항만으로, 배후경제구역 또한 매우 넓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각광받는 지역임
 - 또한 해안선의 길이는 총 1,000미터, 수심의 깊이는 최대 20미터임
 - 동자커우항 개발공사는 2009년 5월 23일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
 - 지속적인 방파제 건설을 통해 선박들의 정박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진입항로 공사를 완공하여 정식으로 개통하였음
- 동자커우항은 중국정부가 비준한 '중국 최대의 심수항 건설' 항만 중 하나임
 - 현재 동자커우항에서 진행 중이거나 입주가 확정된 프로젝트는 약 20여개로, 총 투자비용은 1,157억 위안(약 186억 달러)임
 - 동자커우항에는 40만 톤급 선석이 완공되었고, 3개 전문 내만(back bay), 112개 선석 및 20km²의 보세구역 확장 공사 중이며, 동자커우항은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심수항만을 건설할 계획으로 전체 규모는 칭다오항의 약 2배 정도임
- 동자커우항은 중국 내 '4세대 국제심수중심항'을 건설목표로 하여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
 - 4세대 항만의 특징으로는 심수화 및 대형화, 주변지역과의 긴밀화, 항만기능 다양화, 서비스정보화, 녹색생태과학기술화 등이 있으며 동자커우항은 이 모든 기능을 총망라한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
 - 또한 중국 국무원은 <산둥반도 블루경제구 발전계획>에서 칭다오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제항만종합허브 건설을 명시하였는데, 이는 동자커우항의 개발 및 칭다오시의 미래 경제발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 - 동시에 동자커우항은 녹색항만건설모델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항만건설을 목표로 항만 및 주변 배후지역의 전체적인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계획임

자료 : www.chineseport.cn, 2012.11.2

강지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jhkang0813@kmi.re.kr)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□ 미국, 조지아주 사바나항 확장 공사 착공

- 조지아 주 항만공사(The Georgia Ports Authority; 이하 GPA)는 사바나항(The Port of Savannah) 확장 공사를 2013년 초에 착공할 예정
 - 확장 공사에 대한 계획은 2010년에 발표¹⁾되었으며, 최종 승인은 2012년 11월 결정되었음
 - 사바나항에 포스트-파나마크스(Post-Panamax)급 선박이 정박 가능하도록 수심 깊이를 47피트까지 증설할 예정이며, 전체적인 확장공사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임
 - 확장되는 항만시설에 맞춰 현재 1200에이커 넓이의 컨테이너 시설 개선을 위해 부가적으로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- 사바나항 확장공사로 인하여 멕시코 만(Gulf of Mexico) 지역의 컨테이너 무역 증가와 선적비용의 감소가 예상됨
 - GPA의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에 의하면, 향후 50년간 컨테이너 무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약 213백만 달러의 선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됨
 -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106.5억 달러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, 사바나항 주변 지역에 약 21,000여개의 부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계산되었음
- 사바나항은 미국 조지아 주의 가장 큰 항구로 대서양과 인접하여 멕시코 만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미 동부의 대표적 항구 중 하나임
 - 컨테이너 터미널은 가든 시티 터미널(Garden City Terminal)이라 불리며, 전체 면적은 5km², 길이는 2,955m이며 전체 15개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음
 - 벌크 화물은 오션 터미널(Ocean Terminal)에서 처리되며, 오션 터미널의 전체 면적은 0.8km², 길이는 2,039m에 14만m²의 창고시설이 설치되어 있음
 - 전체 시설 관리는 GPA에서 하고 있으나, 이케아(IKEA), 타겟(Target), 하이네켄 미국지사(Heineken USA) 등 민간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 시설도 일부 존재함

< 조지아주 사바나항 위치 >



< 포스트 파나마크스선 >



자료 : www.gaports.com/www.portstrategy.com, 2012.11.6

김일현 연구원 (☎ 02-2105-2914, blaze28@kmi.re.kr)

1)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60호 참조

□ APMT, 나이지리아 항만 개발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

- APMT는 나이지리아 라고스(Lagos)주 서부 지역에 신규 심수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음
 - 라고스주 서부지역의 Badary에 심수항만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수용문제에 대해 협상 중에 있다고 함
 - APMT는 나이지리아 항만청과 개발계획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하여 2013년 말부터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, 2016년에는 첫 단계 개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음
 - 첫 단계 개발 사업은 선석길이 650m의 2개 선석과 수심 14.5m인 컨테이너 터미널로 연간 백만 TEU 처리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함
- 아울러 본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업 및 로컬기업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발표함
 - 글로벌 기업으로는 Terminal Investment Ltd¹⁾과 Royal Haskoning DHV가 있음
 - TIL은 현재 토고에 있는 Lomé International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중국 CMHI(China Merchants International Holdings)가 50%의 운영 지분을 매입함
 - 또한 APMT와 TIL은 브라질 산토스에 위치한 Portuário 터미널 개발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
- Badary는 베냉과 라고스를 잇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활한 물류운송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따라서 APMT는 현재 4차선인 도로를 항만개발 이전까지 10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함
 - 또한 Badary 지역의 프로젝트중 ICTSI와 나이지리아 항만청이 Lekki 컨테이너 터미널개발과 복합 산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임
 - 참고로 ICTSI에서 개발하는 Lekki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²⁾은 라고스 주정부와 나이지리아 항만청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ICTSI에서 개발 및 21년의 운영권을 획득하여 2016년에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

자료 : www.lloydslists.com, 2012.11.16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1) TIL에는 세계 2위 해운기업인 Mediterranean Shipping Co,와 맥쿼리 그룹, 오일과 가스 탐사 및 서비스를 주로 하는 로컬기업인 Orlean Invest와 Oando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

2) 연간 25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사업비용은 약 2억 2,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

□ DP World, Jawaharlal Nehru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계약 체결

- DP World는 자와할랄 네루 항만공사(Jawaharlal Nehru Port Trust, JNPT)와 뭄바이에 위치한 Jawaharlal Nehru항 제4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계약을 체결
 - DP World는 본 터미널 건설에 200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, 연간 8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330m 부두와 13.3m 수심의 선석, 야드 17ha를 건설할 예정임
 - 또한 DP World는 17년 운영권을 확보했으며, RMQC(Rail Mounted Quay Crane) 4개와 RTGC(Rubber tyred gantry crane) 12개를 구매할 계획임
 - 본 컨테이너터미널은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
- 현재 자와할랄 네루항에는 JNPCT, NSICT, GTIPL 3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으며, 2011년 처리물동량은 각각 876,368TEU, 1,537,240TEU, 1,856,203TEU임
 - 자와할랄 네루항 컨테이너 터미널 처리능력은 JNPCT, NSICT, GTIPL 각각 1.1백만 TEU, 1.2백만 TEU, 1.8백만 TEU임
 - 또한 부두길이는 각각 680m, 600m, 712m 이며, 선석은 3개 터미널이 모두 12.5m임

< 자와할랄 네루항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현황 >

CONTAINER TERMINAL	JNPCT	NSICT	GTICT	TOTAL
Quay Length (m)	680	600	712	1,992
Draft (m)	12.5	12.5	12.5	-
Capacity (백만 TEU)	1.1	1.2	1.8	4.1
RMQCs (No)	8	8	10	26
RTGCs (No)	5	3	3	11

자료 : www.jnport.com

< 자와할랄 네루항 위치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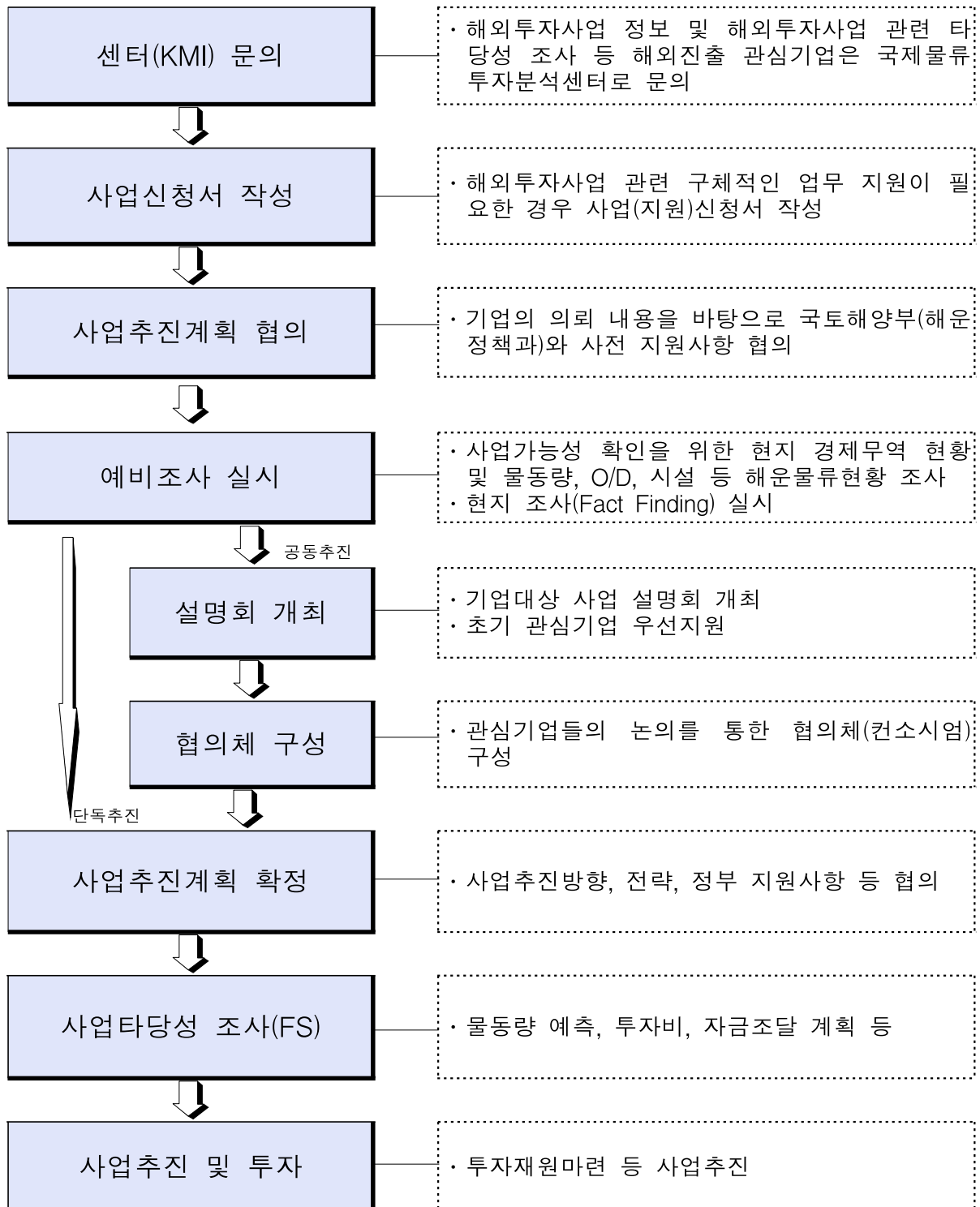
< 자와할랄 네루항 전경 >

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, 2012.11.5

최은혜 연구원 (☎ 02-2105-2838, choeeunhye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